#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 경기둔화 우려 압도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## 증시 분위기 반전시킨 관세 판결

- 미 증시는 DOW +0.47%, S&P500 +0.69%, NASDAQ +0.90%로 상승 마감
- 발표된 경제지표 영향에 약세 출발한 증시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소식 이후 커뮤니케이션, 경기소비재 등 수혜섹터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
- 다만 전일 불거진 블루아울발 사모대출 리스크는 AI 밸류체인 자금경색 위험으로 이어지며 BX, CRWV, AKAM 등 관련기업 주가 하방압력 작용

## GDP 성장률 부진과 Sticky 한 PCE 물가

- 4Q25 GDP 성장률 QoQ +1.4%로 쇼크, 전분기 대비 크게 둔화. 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정부지출 기여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 원인(0.4%p→-0.9%p). 다만, 소비, 기업투자, 민간지출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
- 12 월 PCE 헤드라인물가 YoY 2.9%, 근원물가 YoY +3.0% 컨센 상회. 근원 PCE 는 지난 1 년래 가장 높은 레벨
- 표면상 경기 둔화+물가 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지표에 CME FedWatch 상 6 월 동결 확률 46.5%로 근소하게 인하 확률을 앞섰음

## 관세 위헌 판결, '글로벌 관세'로 재대응하는 트럼프

- 미 대법원은 IEEPA 기반 상호관세에 위헌 판결. 트럼프대통령은 판결 당일 무역법 122 조 기반 글로벌관세 10%를 발표하고, 주말중 최대 레벨인 15%로 상향. 베센트 재무장관은 150 일 한시법인 122 조 외에도 타 법안에 의한 관세 정책을 새로 마련해 관세기조를 유지할 방침
- 시장은 이미 트럼프가 위헌판결시 다른 관세부과 수단을 찾으리라 예상했기에 새 관세정책에 대한 시장 영향 제한적. 1 년 이상 지속된 법적 불확실성 소멸과, 조세재단의 실질 관세율 17%→7% 하락 전망 등에 주목. 주 수혜영역인 소비재, 유통사, IT하드웨어, 반도체 중심 강세
- 다만, 기 납부된 관세의 환급 문제는 불확실. 관련 기업 소송과 EU 등 타 주요국들과의 관세 협정, 외교 대응 향방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. 국채금리, 달러인덱스는 제한적 흐름

## 특징주: 관세 판결 수혜로 소매/유통주 온기 확산

| 티커 | 종목명 | 수익률 (1D,%)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EBAY | 이베이 | +3.9% |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,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었던 이커머스/유통 섹터 주가 강세. 또한 엣시(+8.4%)가 호실적을 발표하는 등 섹터 반등 기대감 확산 |
| CRWV | 코어위브 | -8.1% | 블루아울(-4.8%)이 동사의 펜실베이니아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$4B 규모 자금 조달 실패 소식에 양사 모두 주가 약세 |
| GLW | 코닝 | +9.4% | UBS 의 매수 의견 유지 및 TP 상향($125→$160) 소식에 주가 상승. 광섬유 및 케이블 솔루션의 강력한 수요가 향후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 |
| W | 웨이페어 | +2.3% | 4 분기 호실적 발표에 주가 강세. 플로어앤데코(+4.3)도 호실적 발표에 주가 상승하며, 가구 및 건자재 업종 반등 주도 |
| OPEN | 오픈도어 | +7.5% | 4 분기 매출이 컨센 상회하며 주가 상승. 또한 CEO 는 '26 년 말까지 순이익 흑자 전환을 추진 중이라 언급하며 센티 개선 |